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 17장은 음녀의 파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계 18장은 바벨론 심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계 18:1절의 “이 일 후에”는 17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바벨론이 무너졌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힘찬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도다.**”). 큰 성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주지, 각종 더러운 영과 새들이 모이는 소굴입니다. 여기서 ‘거주지’는 ‘감옥’ 또는 ‘갇힌 곳’을 말합니다. 또 ‘더럽다’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미움을 받는’, ‘혐오 되는’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온갖 부정하고 미움을 받는 감옥과 같은 장소로서 신적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의 패망의 원인입니다.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동조한 자들도 심판을 당합니다(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 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서 땅의 왕들과 상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권세자들과 상인들을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도 이들을 최대한 활용했고 결국 이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어린 양을 따르고 그와 함께 한 자들은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계 17: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들이 이긴자입니다.

### 바벨론 멸망의 선포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바벨론과 함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유사한 본문이 예레미야서와 선지서들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렘 50:8,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 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렘 51:6,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와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사 48:20,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여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 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와 같이 ‘나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도록 경고하실 때 사용하는 규칙적인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매우 심각합니다(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이 저지른 모든 불의한 일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선한 일도 다 기억하시지만 그와 반대로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불의한 일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저지른 악한 행위대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6-7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갇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음녀가 이러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녀가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음녀의 사치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치는 육체의 쾌락과 동반되는 것으로서 계 18장 3절에서는 그것을 악의 세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하루 만에 도래하게 됩니다(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기서 ‘하루 동안’은 문자적으로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신속하게 완전하게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벨사살의 바벨론이 멸망하던 때를 회상하게도 합니다(단 5:30-31,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때에 다리오는 욕심이 세였더라.”).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재림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이고 축제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에 바벨론은 로마로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로마가 무너졌다고 해서 더이상 그러한 세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지금은 세상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급격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홍성진 선교사님의 말씀과 간증대로 아마존에만 돈과 마약과 같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성적인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동일하게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모로코를 위한 기도:** 모로코 중부 지역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해 약 3 천명 가량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피해 복구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고 사상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선교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 기관을 위한 기도:** 콜럼버스하우스(뉴헤이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